

# 디지털에서 탈출...놀이 즐기며 운동하니 일석이조

기자가 해 봤다...‘경도(경찰과 도둑)’ 모임 직접 참가해보니

젊은층 중심 게임 점목 러닝 열풍...당근마켓 모임 30여명 참여  
술래 잡기·얼음땀 등 숨가쁜 달리기 영하 날씨 속 금세 땀방울

최근 새해 전후로 운동 열풍과 ‘논디지털 취미생활’ 트렌드와 접목돼 젊은층을 중심으로 ‘경·도(경찰과 도둑)’놀이 모임이 인기를 끌고 있다. 경도는 도망 다니는 ‘도둑’과 이들을 잡는 ‘경찰’로 역할이 나뉘는 술래잡기 놀이다.

지난 2주간 광주 지역에서 추진된 경도 모임만 20여개, 총 참가자는 2500명이 넘는다. 가장 많은 방은 1600여명이 참여하고 있어 인기를 실감케 했다.

지난 3일 밤 광주시 남구 봉선동 유안근린공원 일대에서도 ‘경·도’ 놀이가 열렸다. 모임에 직접 참가해 처음 보는 사람과 어울리며 경도부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마피아 게임’ 등을 하며 스트레스를 잊어버릴 정도로 뛰어다녔다. 오랜만에 ‘동심’에 빠져드는 기분도 느낄 수 있었다.

이날 밤 9시께 유안근린공원 일대에 모인 사람은 총 30명으로, 19세 고등학생부터 36세 직장인까지 연령도, 사는 곳도 제각각이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으로 인기를 끌었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로 위밍업을 했다. 출발점인 배드민턴 코트장에 서서 공원 가로등 아래에 선 술래를 바라보니, 침도 함부로 못 삼킬 만한 긴장감이 엄습했다. 술래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외침에 맞춰 참가자들과 함께 발걸음을 재촉하다 멈춰서길 반복했고, 술래가 뒤늦게 움찔거리는 사람을 지목하는 곳곳에서 웃음을 잡는 소리도 들렸다.

술래는 ‘걸린’ 참가자들과 줄줄이 새끼손가락을 걸어 잡았다. 참가자들을 구하기 위해 고리를 끊어

내자, 배드민턴 코트장 방향으로 전력질주를 하면서 마치 아이처럼 신난 비명이 터져나왔다.

‘경도’를 시작하기 앞서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찍고 모임에 참가 신청한 뒤 동 구역을 표시한 ‘구역 제한 지도’도 휴대전화로 공유받았다.

경찰 역할 참가자들은 야광조끼나 랜턴을 착용하고 있었고, 게임 시작 직전에는 체력을 보충하겠다고 아르기닌이나 녹용을 챙겨 먹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제한 시간은 10분이고, 터치된 사람만 풀려나요.”, “경찰에 잡히면 양팔로 엑스자를 하고 감옥으로 오시면 됩니다.”

규칙 설명이 끝나자 도둑 역할 참가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공원 한가운데가 순식간에 술래잡기판으로 바뀌며 젊은이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뒤에서 야광조끼가 번쩍이자 본능적으로 속도가 붙었다. 달리기를 시작한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 숨이 턱에 걸렸다. 목에서 피 맛이 날 정도로 도망치다 수풀 사이에 몸을 숨겨봤지만, “도둑이 여기 있다”는 외침과 함께 다시 추격이 시작됐다.

영하 4도의 추위에도 땀은 목덜미를 타고 흘렀고, 숨을 고르던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뛰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난다”, “밥 먹은 게 다 꺼진 것 같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외투를 벗어던진 참가자들도 적지 않았다.

이후 자정이 다 돼도록 ‘얼음땀’ 놀이, ‘마피아 게



지난 3일 밤 광주시 남구 봉선동 유안근린공원 일대에서 ‘경·도(경찰과 도둑)’ 놀이 모임이 열렸다. 경찰과 도둑 역할을 맡은 참가자들이 술래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임’ 등 놀이가 이어졌다.

이날 모임에 참여한 이연준(31)씨는 “친구 권유로 나왔는데, 평소 노트북만 보며 지내다가 이렇게 뛰어다니는 게 정말 오랜만”이라며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숨고 쫓는 것 자체가 신선하고 재밌다. 요즘 사회가 ‘남 신경쓰기 보다는 내 할일만 하자’ 주의라 각박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은데 잠시나마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한도균(26)씨도 “SNS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재밌어 보여서 당근마켓에 검색해 들어왔다”

며 “같이 해보니까 좀 뽀아오르는 게 있다. 현실은 있고 아무 생각없이 땀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재미인 것 같다”고 했다.

틱톡·쇼츠 등 자극적인 디지털 콘텐츠에서 벗어나 오감 체험으로 만족감을 느끼려는, MZ세대의 ‘논디지털 취미생활’과도 연결된다는 것이 전문가 해석이다. 또 최근 열풍을 일으켰던 ‘러닝’ 문화의 대체재로서 자리잡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치욱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부원장은 “청년들이 과거 추억의 놀이를 다시 찾는 현상은 최근 일

상속으로 스며든 인공지능 기술 등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사회가 일부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주기도 한다는 방증이다”며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여가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이들이 동심을 자극하는 공동체적인 여가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활력을 얻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나주 종오리농장서 전남 여섯번째 AI 검출

검역당국 고병원성 판명

전남에서 여섯번째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되면서 가금 농가를 중심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나주시 반남면의 한 종오리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

이 농장은 종오리 8000여마리를 사육중인 곳으로, 농장주가 산란을 저하에 이은 개체 폐사를 목격한 뒤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결과 해당 농장에서 검출된 항원 역시 고병원성으로 판명됐다. 이로써 올 겨울 전남에서는 지난해 겨울 발생건수와 같은 6건의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현재 이동이 계속되고 있고, 지난해 겨울만 하더라도 AI가 3월 까지 검출됐다는 점에서 가금 농장의 걱정은 깊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조류인플루엔자는 감염력이 높고 비교적 닭에 감염될 확률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최대 오리 사육 지역인 전남에서는 오리 농가를

중심으로 항원이 검출되고 있지만, 산란계 농가들도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전남 내 산란계 농가는 77개 농가 540만2258마리로, 경기와 경북, 충남 등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많다. 전국적으로도 산란계 농가에서 AI 항원 검출이 잇따르고 있다.

AI 확산은 계란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계란 30구 가격은 7045원으로 전년 평균가격(6894원)과 평년가격(6462원)과 비교해 각각 2.19%, 9.02% 오른 상태다.

전남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고삐를 죄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전국의 가금농장에서는 환파에 대비해 소독시설 동파 방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폐사 증가, 산란을 저하 등 고병원성 AI 주요 증상뿐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돼도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전남 출근길 영하권 추위  
동부권 중심 건조한 날씨 지속

당분간 광주·전남은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5일부터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맑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추위가 지속되겠다고 4일 예보했다.

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 낮 최고기온은 5~8도를 보이겠다.

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4~9도가 예상되며,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또 여수, 광양, 순천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전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고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어 야외 활동을 할 때 불씨 관리, 쓰레기 소각, 논밭 태우기 금지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 새해부터 윤석열 내란 결심·선고 공판 잇따라

9일까지 내란 결심 공판 변론 종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 선고 재판이 새해 초부터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오는 9일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5~6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등 남은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7일과 9일 특검 측과 피고인들의 최종 의견 진술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등 3가지뿐이다.

오는 2월 말 법관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선고 재판은 2월 초중순께 열릴 것으로 점쳐진다.

오는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 재판이 열린다. 내란 관련 사건 중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선고가 내려지는 재판이다. 앞서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징역 11년 3개월)보다 낮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포함해 총 8개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는 12일에는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으며, 13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과 관련한 위증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14일에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 범인도피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오는 29일에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수사 외압 행사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됐다. 이밖에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은 아직 첫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유연재 기자 yjyou@

www.kwangshin.ac.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sup>+</sup>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sup>+</sup>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2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6]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